45과 다시 찾은 아들

11월 8일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나누어 줄 재산을 지금 주세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그 곳에서 놀고먹으며 돈을 다 써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하는 수 없이 다른 사람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 냄새! 이렇게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지."

그러다가 둘째 아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런 바보 짓을 하고 있지? 집에 가면 굶지 않을텐데. 아버지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아버지는 용서해 주실거야.'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때까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옷을 허름하게 입은 거지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세히 보니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오늘은 기쁜 날이구나.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구나!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동네 사람을 불러 잔치를 벌이자."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밭에서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하인에게 물었어요.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인님이 잔치를 열게 하셨어요."

"잔치라니? 내게는 한 번도 잔치를 열어 주지 않았는데, 이것은 불공평해!"

첫째 아들은 기쁘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났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네 동생은 잃었다가 돌아왔으니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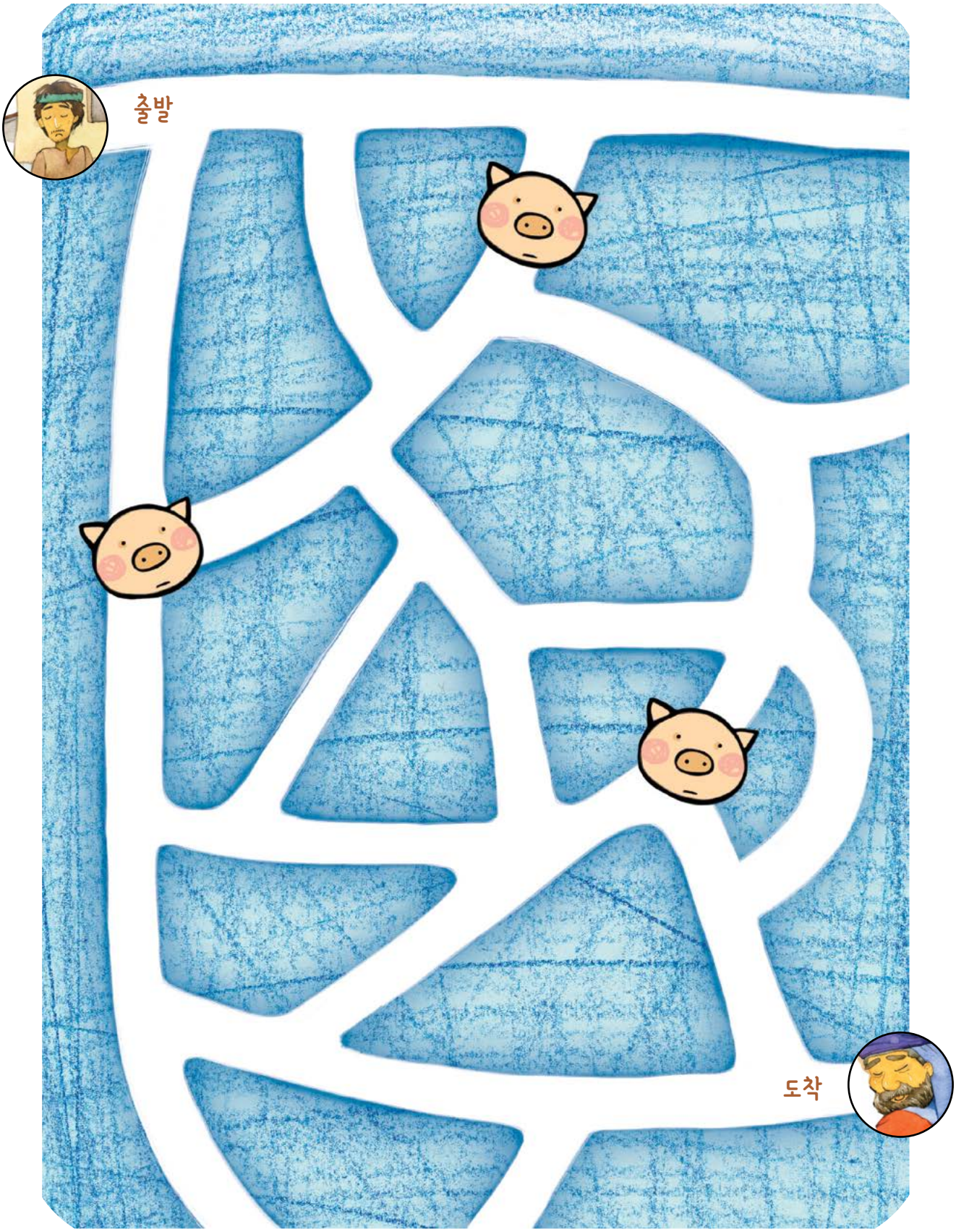
생각하는 아이

오늘은 온 식구가 집안을 청소하는 대청소 날이에요. 남우는 자기 방과 장난감 상자 그리고 침대 밑을 구석구석 청소해야 해요. 툭툭, 탁탁 뽀얀 먼지를 털고, 쓱쓱, 싹싹 걸레질도 해요. 열심히 청소를 하던 남우는 침대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어! 뭐지?" 손을 길게 뻗어 잡으려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먼지떨이로 툭! 툭! 여러 번을 치면서 힘들게 꺼냈어요.

남우는 너무너무 기뻐서 “와, 찾았다.” 하며 큰 소리를 질렀어요. 오래 전에 아빠가 사 주신 ‘성경 그림책’이었어요. 남우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많이 속상했었는데, 이제야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어요. 식구들도 함께 기뻐했어요.

즐거운 활동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려고 해요. 돼지를 피해서 함께 길을 찾아가 보세요.



마음속 암송

따라 쓰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다시 쓰기

선생님께

부모님께